

## 조생종 최고품질벼의 영남지역 극조기재배 수확적기 구명

이종희<sup>1\*</sup>, 이지윤<sup>1</sup>, 조준현<sup>1</sup>, 강주원<sup>1</sup>, 신동진<sup>1</sup>, 권영호<sup>1</sup>, 조수민<sup>1</sup>, 박동수<sup>1</sup>, 송유천<sup>1</sup>, 고종민<sup>1</sup>

<sup>1</sup>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 [서론]

최근 쌀 생산량 증대로 인한 쌀값하락에 대비한 틈새시장 전략으로 햅쌀 조기공급을 목적으로 4월 중순에 이양하는 극조기 재배가 영남지역 일부 농가가 증가되고 있다. 극조기 재배에 적합한 최고품질벼의 적정수확시기를 구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 [재료 및 방법]

조생종이면서 최고품질벼인 진광, 운광, 해당쌀, 해들 4품종을 공시하여 재식거리 30\*15cm 주당 3주로 재식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적정수확시기 구명을 위하여 8월 1일부터 7일 간격으로 5회 수확하였으며, 현미의 청미율과 정상립의 비율로 적정수확시기를 분석하였음

### [결과 및 고찰]

최근 조생종 품종은 중산간지 재배에서 평야지 조기재배를 통한 햅쌀 조기공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재배적 노력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영남지역의 극조기 재배에서 최고품질벼인 해당쌀, 진광, 운광, 해들의 적정 수확시기를 구명하고자 주요 농업적 특성 및 품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출수기(월,일)는 진광(7.09), 운광(7.13), 해당쌀(7.14) 해들(7.16)순으로 빨랐으며, 출수가 가장 빨랐던 진광과 가장 늦은 해들과는 약 7일간의 출수 차이가 있었다. 간장은 진광이 52.7cm 가장 적었고, 해들이 65.1cm 가장 컸다. 전체적인 생육상황은 보통기재배보다 생육량이 적은 편이었다. 품종별 수확적기 구명을 위해 청미 및 정상립의 발생율을 분석하였다. 해당쌀은 8월 1일 청미 발생율이 32.3%였으며, 8.8일은 2.1%까지 감소하였다. 진광은 대해당쌀보다 출수는 빨랐지만 청미발생율은 8.8일 경에 14.7%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8.15일 이후 1.1%까지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운광과 해들은 진광과 유사하게 청미발생율이 8.15일 해들은 8.15일 경에 가장 낮았으며, 정립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해당쌀의 수확적기는 8.8일 전후로 다른 품종보다 1주일 정도 빨랐다. 진광, 운광, 해들은 8.15일 전후에 청미발생율이 1.9%이하로 감소하였다. 공시품종의 수확적기는 해당쌀은 8.8일 전후가 적당하였으며, 진광, 운광 및 해들은 청미발생율이 1.3%이하인 품종에 대해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168403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55-350-1168, E-mail, ccrljh@korea.kr